

교육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현 영어교육 시장의 트랜드는 미래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초중등 시기의 영어교육은 핵심주제, 지식정보습득,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역량, 인성교육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 목동 지역을 대표하는 C학원에서는 “수능 절대평가와 높아진 난이도 때문에 경쟁력있는 프로그램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여 년간 ELT교재 및 E-Learning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출판하여 국내 1,000여개의 파트너 교육기관에 보급해 온 영어교육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트로피러닝에서 신학기를 맞이하여 미국공통핵심교육과정(CCSS)이 반영된 신간 교재 『TROPHY9(트로피나인)』을 출시하였다.

『TROPHY9』은 미국 공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미국 『Benchmark Education』의 Leveled Readers를 기반으로 설계된 54단계의 교재(리더스북 198권, 워크북 54권)와 온라인학습, 관리시스템을 정규수업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며, 다독을 위한 전자도서관(e-Book 1,000여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트로피러닝은 “철저하게 검증된 콘텐츠와 체계적인 커리큘럼, E-Learning 프로그램은 물론 교사를 위한 다양한 교수자료를 준비하여 영어 전문 교육기관의 니즈를 반영한 최신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고 전했다.

한편 『TROPHY9』은 신간 원서교재 출시를 기념하여 매주 수요일에 본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트로피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